

세 집단간의 비교를 통하여 본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도덕지향에 대한 연구 :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 및 도덕지향을 중심으로

백 혜 정

동덕여자대학교 BK21 아동교육연구단

이 순 목

성균관대학교 BK21 아동교육연구단

본 연구는 Kohlberg의 도덕판단 이론에 근거하여 청소년기에서 성인기에 해당하는 남녀 총 82명을 대상으로 그들이 내리는 도덕판단의 특성을 도덕발달 단계와 도덕지향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았다. 측정도구로는 Kohlberg의 가상적 3가지 딜레마(Form A)를 사용하였으며 일대일 개인면담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도덕발달 단계는 집단에 따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지향 사용에 있어서도 부분적인 차이를 보였다. 즉, 이기적 결과 지향, 이상적 결과 지향 및 공정성 지향의 사용에서 집단간의 차이가 나타났다.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결과들을 우리나라 아동기 및 다른 문화권에서의 도덕지향 사용경향에 대한 선행 연구 결과들과 연계하여 살펴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지향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언급하였다.

주요어 : Kohlberg, 도덕지향, 도덕발달 단계, 도덕판단.

본 연구는 우리나라 청소년 및 성인의 도덕판단을 측정함으로써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판단의 특성을 도덕발달단계 및 도덕지향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도덕판단 연구들의 대부분은 주로 연령에 따른 도덕발달단계

를 진단하거나(예: 문용린, 문미희, 1993), 도덕발달단계와 개인적 특성들(자아 개념, 성별, 일탈 행위, 가정 환경 등)간의 관계를 논의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예: 김선영, 1987). 이는 개인의 도덕판단은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문화적 특성에 상관없이 보편적 단계를 거쳐 발달한다는 Kohlberg(1969, 1984)

의 도덕발달이론을 기본 전제로 하여 도덕발달단계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라 할 수 있다. Kohlberg가 도덕발달의 보편성을 주장한 이래 도덕판단 발달에 있어서의 보편성과 문화적 차이에 대한 연구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권에서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문화에 따른 약간의 변동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Kohlberg가 주장하는 도덕판단 발달단계의 보편성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예: Nisan & Kohlberg, 1982; Tietjen & Walker, 1985; Walker, 1989; Walker & Moran, 1991). 하지만 Kohlberg의 도덕판단이론은 도덕발달단계뿐만 아니라 도덕지향과 딜레마 상황에서의 이슈(issue)선택 문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도덕발달단계의 보편성이 입증된 것과는 달리 도덕지향과 이슈선택에 있어서는 문화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예: Nisan & Kohlberg, 1982; Snarey, Reimer, & Kohlberg, 1985; Tietjen & Walker, 1985; Walker & Moran, 199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ohlberg의 가상적 딜레마를 사용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판단, 특히 도덕발달단계와 도덕지향에 있어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 또한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세 집단-고등학생 집단, 대학생 집단과 행정고시 출신의 공무원(5급) 집단을 선택하여 비교하였다. 그중 공무원 집단의 구성원들은 모두 대학졸업 후 행정고시를 통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이들로서 학력면에서 볼 때 우리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엘리트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 대상자들은 연령 뿐 아니라 교육의 정도나

문화적 경험 및 가치관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는 개인의 도덕지향 사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이 본 연구의 출발이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우선적으로 Kohlberg의 도덕판단이론에 대해 도덕지향을 중심으로 간단히 기술하고 그와 연관된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Kohlberg의 도덕발달단계 및 도덕지향

Kohlberg는 한 개인의 도덕판단은 도덕발달단계와 도덕지향이라는 개념상 독립적인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도덕발달단계와 도덕지향은 각각 개인의 사고구조와 사고내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Kohlberg는 개인의 도덕판단 발달단계를 크게 3가지 수준으로 나누고 각각 전관습적, 관습적, 후관습적 수준이라고 명명하였다. 또한 각 수준마다 2단계씩으로 나누어 총 6단계에 거쳐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발달단계에 대해서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으므로²⁾ 여기서 더 이상의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도덕지향은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제시되었으며 그 다섯 가지 지향에 대한 간단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the orientation of upholding normative order)은 합법과 규칙으로 인해 만들어진 의무와 정의를 지향하는 판단을 의미한다. 둘째 *이기적 결과*

1) 도덕판단이론 및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은 대부분 백혜정, 고선주(2001)의 논문에 수록된 것을 재 정리하여 제시한 것임을 밝혀둔다.

2)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한다면 국내의 논문 및 서적(예: 김민남 외 역(2001). 도덕발달의 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등을 참고할 것을 권한다.

지향(the orientation of egoistic consequences)은 행동에 대한 결과로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보상과 처벌의 유무 또는 자신에 대한 평판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것을 뜻한다. 셋째 자신이나 타인 또는 양쪽 모두의 이해(利害)에 따라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공리적 결과 지향(the orientation of utilitarian consequences)**이며 공리적 결과 지향은 넓은 의미에서 이기적 결과 지향을 포함한다. 넷째 **이상적 또는 조화기여적 결과 지향(the orientation of ideal or harmony-serving consequences)**은 타인의 승인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양심이나 동기, 덕행을 지향하는 판단을 말하며 다섯째 **공정성 지향(the orientation of fairness)**은 도덕 판단에 있어 자유, 평등, 공정, 계약 등을 지향할 경우를 의미한다. Kohlberg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도덕지향들은 도덕발달단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정성을 지향하는 판단이 최선의 판단이며 높은 발달단계에 있는 개인들은 이러한 경향을 반영할 것으로 믿었다. 그러나 Kohlberg를 비롯하여 많은 학자들이 도덕지향에 대해서는 도덕발달단계만큼 충분한 연구를 하지 않았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도덕지향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대개 도덕지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규명하는 차원에서 수행되어 왔다. 즉, 성별, 딜레마 형태, 연령 또는 도덕 발달 단계, 그리고 문화 및 소속사회집단 등에 따른 도덕지향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 왔다고 할 수 있다.

(1) 성차와 도덕지향

Gilligan(1982)이 성별에 따른 도덕지향의 차이를 주장함으로써 도덕지향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도덕지향을 크게 두 가지-공정성 지향과 배려 지향-로 나누었으며 그중 남성은 정의, 공정 및 권리를 우선시 하는 공정성 지향을, 여성은 배려, 감정이입 및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배려 지향**을 주로 하는 도덕판단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Gilligan의 공정성 지향은 Kohlberg의 지향 중 원리원칙이나 규칙들과 관련이 있는 규범적 질서 유지 지향과 공정성 지향을 의미하며 **배려 지향**은 인간관계적 측면을 강조한 이기적, 공리적, 이상적 결과에 따른 지향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또한 그에 따르면 Kohlberg의 채점방식으로는 배려를 지향하는 여성의 도덕판단은 남성에 비해 낮게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는 Kohlberg의 도덕판단이론이 공정성 지향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남성 위주의 이론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후 Gilligan을 비롯한 많은 연구자들(Daniels, D'Andrea, & Heck, 1995; Garmon, Basinger, Gregg, & Gibbs, 1996; Gibbs, Arnold, & Burkhart, 1984; Gilligan & Attanucci, 1988; Johnston, 1988; Walker, 1989)이 도덕지향에서의 성차를 살펴보았으나 결과는 연구자들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났다. 일련의 연구결과들(예: Garmon et al., 1996; Gibbs et al., 1984)은 여성들이 일반적으로 공정정보다는 배려를 더 지향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반면 또 다른 일련의 연구들(예: Daniel et al., 1995; Gilligan & Attanucci, 1988; Walker, 1989)에서는 도덕지향에 있어서 성차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Daniel 등(1995)은 하와이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통계적으로 남녀 모두 배려 지향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이는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

였다. Baek(2002)은 한국과 영국의 아동을 비교한 연구에서 영국 아동집단과 달리 한국 아동집단에서만 특정 딜레마, 즉 Joe's dilemma에서는 16세 여자 아동이 같은 연령의 남자 아동에 비해 공리적 결과 지향을 더 선호하는 것을 발견하였지만($p < .01$) 전반적으로 모든 딜레마에서 고르게 나타난 성차는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백혜정, 이순목, 2002)에서는 Gilligan의 주장과 상반되게 약하나마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Gilligan의 공정성 지향에 포함되는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을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연구자는 이러한 성차들을 한국의 문화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Gilligan의 도덕지향에 있어 성차에 대한 주장을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여진다.

더욱이 Walker(1989)는 그의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성별보다는 딜레마의 형태가 도덕 지향 사용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에 상관없이 가상적 딜레마에서는 공정성을, 실생활 딜레마에서는 배려를 더 많이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생활 딜레마의 경우 대인관계에서의 친밀 정도가 지향사용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의 갈등상황에서는 배려를, 공적인 사건이나 그다지 친밀하지 않은 사람과의 갈등상황에서는 공정성을 주로 지향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덕지향 사용에 있어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을 것으로 가정하고 그에 대한 연구는 생략하기로 한다.

(2) 연령 및 도덕 발달단계와 도덕지향

선행 연구들은 또한 도덕지향 사용에 있어서 연령 및 도덕발달단계에 따른 차이를 보여 주었는데, 이는 도덕지향 사용과 도덕발달 단계가 상호 독립적이라는 Kohlberg의 가정과 상반되는 결과이다(예: Tappan, Kohlberg, Schrader, Giggins, Armon, & Lei, 1987; Walker, 1989). Tappan 등(1987)은 하나의 발달단계를 A와 B, 두 개의 하위 형태로 나누고 B는 A에 비해 좀더 성숙한 형태라고 주장하였다. 즉, 같은 2단계라도 2A형태는 2B형태보다 하위단계라는 것이다. 여기서 A형태는 도덕판단에 있어서 주로 규범적 질서 유지, 이기적 및 공리적 결과를, B형태는 주로 이상적 결과나 공정성을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Tappan 등은 도덕발달단계가 개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위의 발달단계로 옮겨갈 뿐 아니라 도덕지향에서도 A형태에서 B형태로 전이되어 가며 이러한 도덕지향 발달경향은 그 반대의 경우보다 최대 4배 이상 많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Walker(1989) 역시 캐나다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하위 도덕 발달 단계에 속하는 개인들은 A형태를, 상위 단계에 속하는 이들은 B형태를 더 많이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나 Tappan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다.

한편 Baek(2002)은 7세에서 16세까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발달연구에서 다소 다른 결과를 보고하였다. 즉 어린 시기에는 A형태를 주로 지향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A형태 뿐 아니라 B형태를 포함한 다섯 가지 결과를 모두 지향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아동 및 청소년기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A형태에서 B형태의 지향으로 전이된다기보다는 B형태까지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측면

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Baek의 연구대상자의 연령이 16세까지로 제한되어 있음에 주목하고 16세 이후 성인기에서의 지향 사용경향에 대해 두 가지로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5가지 지향을 모두 고려하는 이러한 현상이 성인기에서도 계속되어지는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선행연구 결과에 비추어 A형태의 지향사용은 감소되고 B형태의 지향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경향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에서 성인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도덕지향 사용경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이러한 예측에 대한 해답을 마련해 보고자 한다.

(3) 문화 및 소속사회집단과 도덕지향

도덕지향의 사용은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예: Tappan et al, 1987; Tietjen & Walker, 1985; Walker, 1986, 1989; Walker & Moran, 1991). Tappan과 그의 동료들(1987)은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재분석한 결과 이스라엘 키부츠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미국이나 대만, 터어키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보다 B형태의 지향을 더 일찍부터 그리고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Tappan 등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 키부츠 문화에서는 다른 문화권에 비해 B형태의 지향에 속하는 평등, 협동 등과 같은 개념을 더 많이 강조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문화적 환경이 도덕지향 사용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같은 문화권 안의 다양한 하위 집단들을 비교한 일련의 연구들(Tietjen & Walker, 1985; Walker, 1986, 1989; Walker & Moran, 1991)은

이러한 Tappan 등의 주장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파푸아 뉴 기니아에서 지도자 집단과 비지도자 집단을 비교한 연구(Tietjen & Walker, 1985)에서는 지도자 집단은 비지도자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상적 결과 지향을 더 선호하며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을 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국사회의 지도자 집단은 파푸아 뉴 기니아의 지도자 집단과 다른 경향을 보여주었다. 즉, 중국사회에서의 도덕적 지도자 집단은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지식인 집단은 이상적 결과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alker & Moran, 1991). Walker와 Moran(1991)은 이러한 두 연구간의 차이가 문화적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중국사회의 도덕적 지도자는 사회적 규범을 유지하는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에 대한 복종을 강조하는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중국인들의 도덕지향에 대한 경향은 연구 대상자의 연령과 사회적 지위가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아 확실한 비교가 불가능함을 감안하더라도 캐나다인의 지향(Walker, 1986, 1989)과도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중국인들은 캐나다인들에 비해 공리적 결과를 더 지향하며 이상적 결과를 덜 지향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또한 백혜정과 이순목(2002)은 우리나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도덕지향 사용에 있어서 학교생활 적응학생과 부적응 학생간의 차이를 지적하였다. 부적응 학생은 적응학생에 비해 일반적으로 이기적 결과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하며, 여학생의 경우 적응학생들은 부적응 학생들에 비해 이상적 결과

및 공정성 지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이 다양한 문화권에 따라, 또는 한 문화권 안의 다양한 하위 집단에 따라 강조하는 가치나 규범, 사회적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차이는 도덕지향 사용에서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지향 사용에 있어서 집단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크게 세 집단-공무원 집단, 대학생 집단, 고등학생 집단-에서 각각 20명, 42명, 20명씩, 총 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공무원 집단은 행정고시를 통하여 선발되어 현재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총 20명(남 18명, 여 2명)을 선발하였다. 선발기준은 입직 후 공무원 사회에 문화적 적응기간을 거쳐서 자신의 직무에 중장기전 비전을 가지는 단계의 사람들 가운데서 행정담당자들로부터 임의로 추천을 받았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30년 6개월(표준편차=40.7개월)이며, 근속연수는 평균 3년 11개월(표준편차=24.1개월)이다. 대학생 집단으로는 서울에서 중상위권에 속한다 할 수 있는 S대학교 3, 4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 대학생 중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42명(남 25명, 여 17명)을 선발하였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24년(표준편차=18.4개월)이다. 고등학생 집단은 서울 소재의 두 고등학교에서 총 20명(남자 10명, 여자 10명)

을 선발하였으며 모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중상위권의 성적을 지닌 학생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6년 7개월(표준편차=5.1개월)이다.

측정 도구 및 절차

모든 자료 수집은 일대일 개인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면접 장소로는 공무원 집단의 경우는 연구자가 찾아간 행정부 각 부서에서 별도로 마련해 준 조용한 장소가, 대학생 집단은 학교내 연구실이, 고등학생 집단은 학교내 상담실이 각각 사용되었다. 일인당 면접시간은 평균 45분이 소요되었으며 면접내용은 모두 녹음된 후 전사되어 채점되었다.

본 연구에서 도덕판단을 측정하기 위해서 Kohlberg의 도덕판단 측정을 위한 가상적 딜레마 3가지(하인즈 딜레마, 경찰관의 딜레마, 소년의 딜레마: Form A, Colby, & Kohlberg, 1987)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번안된 딜레마는 Baek(2002)의 연구에서 사용된 것으로 번안된 내용은 원어의 내용과 거의 일치하며 등장인물의 이름이나 화폐단위 등만이 한국식으로 바뀌었다. 딜레마와 관련된 질문은 Kohlberg 요강(Colby & Kohlberg, 1987)에 나와 있는 표준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각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자발적인 답변을 바탕으로 요강에 나와 있는 방식에 따라 각 개인의 도덕 발달 단계와 도덕지향을 채점하였다. 발달단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채점 가능한 모든 응답들을 해당 단계에 따라 분류한 후 이 응답들에 각각 추정된 발달단계에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점수를 계산하였다. 이렇게 계산된 점수를 WAS(weighted average scores:

가중평균점수)라 하며 이 점수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 발달단계(global stage)를 계산하였다³⁾. 전체 발달단계는 마지막 6단계를 제외한 9단계 척도(1, 1/2, 2, 2/3, 3, 3/4, 4, 4/5, 5)를 사용하였으며 1/2, 2/3, 3/4, 4/5 단계는 각각 앞뒤의 숫자가 나타내는 단계들 사이의 중간단계를 의미한다. 도덕지향 측정 역시 응답 중요강에 나타난 기준에 부합되는 내용만을 먼저 추려낸 후 요강 기준에 따라 5가지 지향으로 분류한 후 각 지향 별로 언급된 총 횟수를 계산하였다.

발달단계 및 도덕 지향에 대한 채점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두 채점자가 독립적으로

결 과

도덕발달 단계

Kohlberg의 가상적 딜레마를 통한 도덕발달 단계는 다음과 같다(표 1 참조). 우선 전체적인 발달단계를 살펴보면 고등학생 20명 중 3단계에 해당하는 학생이 13명, 3/4단계에 해당하는 학생이 7명이었으며, 대학생 42명의 경우는 3단계에 해당하는 학생이 6명, 3/4단계에 해당하는 학생이 34명, 4단계에 해당하는 학생이 2명이었다. 공무원 20명의 경우에는 3/4단계에 해당하는 인원이 18명이었으

표 1. 집단별 각 전체발달단계의 해당인원 및 WAS의 평균(표준편차)

집 단	3단계	3/4단계	4단계	N	WAS평균 (표준편차)
고등학생	13	7	-	20	321.65 (22.04)
대학생	6	34	2	42	343.50 (19.38)
공무원	-	18	2	20	361.70 (18.09)
계	19	59	4	82	342.61 (24.08)

채점한 내용에 대해 채점자간 일치도는 Cohen (1960)의 kappa를 사용하였고 분석용 소프트웨어는 SPSS 10.0을 사용하였다. 즉 첫 번째 채점자가 채점한 내용 중 무작위로 20개를 선정하여 첫 번째 채점자의 채점 내용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째 채점자에게 다시 채점하도록 한 후 두 채점자간의 일치도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 발달단계에 대한 두 채점자간의 일치도 kappa는 .65로, 도덕지향에 대한 일치도 kappa는 .70으로 나타났다.

3) WAS 및 전체 발달단계 계산에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Colby와 Kohlberg(1987)의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며 나머지 두 명은 4단계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도덕발달 단계의 바탕이 되는 가중 평균 점수의 전체 평균은 342점(표준편차 24.08)이며 각 집단별 평균은 고등학생 집단이 322점(표준편차 22.04), 대학생 집단이 344점(표준편차 19.38), 공무원 집단이 362점(표준편차 18.09)이다(표 1). 이는 고등학생의 발달단계가 가장 낮은 반면 공무원의 발달단계가 가장 높아 연령 및 학력에 따라 도덕발달단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집단별 차이에 대해 일원분산분석 검증(one-way ANOVA, SPSS 10.0 for windows) 및 집단간 짝비교를 위한 사후검증으로 Tukey test를 실시

표 2. WAS를 종속변수로 한 분산 분석

변산 1	SS	df	MS	F	ω^2
집단간(A)	16108.26	2	8054.13	20.63*	.33
집단내(S/A)	30839.25	79	390.37		
전 체	46947.51	81			

주: $\omega^2 = \frac{[SSA-(a-1)MSS/A]}{SST+MSS/A} = .33$
 *** $p < .001$

Cohen(1977)은 ω^2 의 크기를 .01, .06, .15일 때 최소한 값, 중간값, 큰 값으로 해석할 것을 제시하였다.

하였다. 또한 검증 전 각 집단별 사례수가 동일하지 않아 Levene 통계량 계산을 통해 분산의 동질성을 확인하였다, $F(2, 71) = .612, p > .55$. 검증 결과 집단별 발달단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F(2, 79)$

$= 20.63, p < .001$. ω^2 로 본 효과크기도 집단간 차이의 효과가 매우 큼을 보여준다(표 2). 사후 검증 결과도 $\alpha = .05$ 수준에서 세 집단의 차이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에 따라 도덕발달단계가 달라질 수 있다는

표 3. 각 집단별 도덕지향 사용 횟수 평균(표준편차)

	규범적	이기적	공리적	이상적	공정성
고등학생	3.57(.39)	.50(.60)	2.00(.92)	2.45(1.23)	3.15(1.09)
대학생	3.24(1.57)	.19(.40)	1.64(.93)	3.67(1.93)	3.17(1.72)
공무원	2.90(1.86)	.15(.37)	2.40(1.70)	5.20(2.19)	4.20(1.61)
전 체	3.23(1.60)	.26(.47)	1.91(1.19)	3.75(2.08)	3.41(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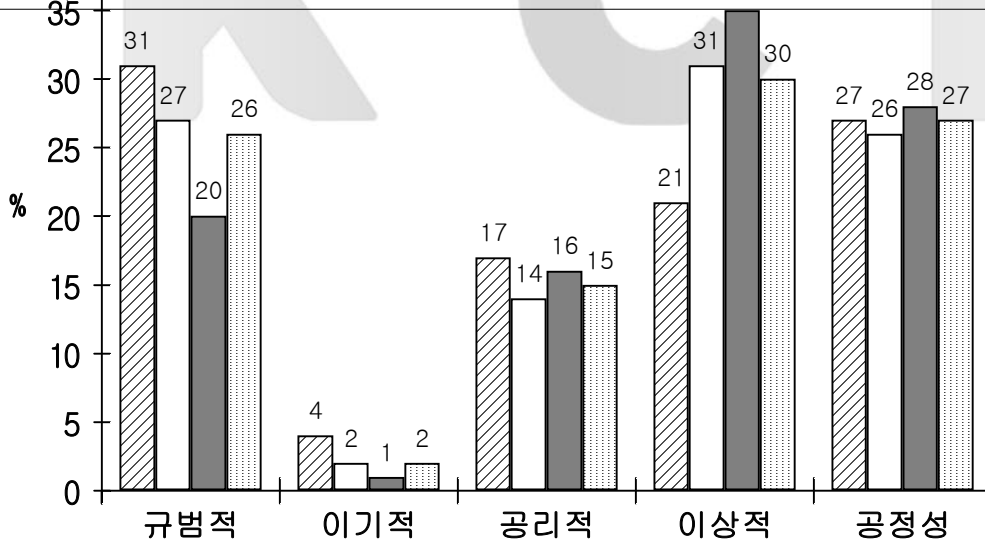


그림 1. 각 집단별 도덕지향 사용비율(%)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도덕지향

여기에서는 가상적 딜레마에 대한 도덕지향 사용결과를 보기로 한다. 각 집단별 도덕지향 사용비율은 그림 1과 같다. 전체적으로 보면(표 3 참조)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 이상적 결과 지향 및 공정성 지향이 모두 비슷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었고 공리적 결과 지향은 상대적으로 덜 언급되었다. 또한 이기적 결과 지향은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적게 사용되었다. 각 집단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 집단은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을 가장 많이 언급한 반면 대학생 및 공무원 집단은 이상적 결과 지향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다. 그 중 공무원 집단의 경우는 이상적 결과지향 사용횟수가 다른 집단이나 다른 지향사용에 비해 두드러지게 높았다.

이러한 집단간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분산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못하여 비모수 검정의 일종인 Kruskal-Wallis의 서열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이기적 결과 지향 및 이상적 결과 지향, 공정성 지향에서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표 4). 각 지향별 평균 순위를 살펴보면 이기적 결과 지향의 경우에는 고등학생 집단(50.22)이 대학생(39.21) 및 공무원 집단(37.58)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공정성 지향은 공무원 집단(54.63)이 다른 집단(각각 37.92, 36.95)에 비해 더 많이 사용하였다. 이상적 결과 지향은 고등학생, 대학생, 공무원의 평균 순위가 각각 25.92, 41.30, 57.50으로 연령 및 학력에 따라 사용횟수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도덕지향에서의 차이는 하위 집단의 특성에 따라 더 선호하는 지향이 있음을 말해준다. 이에 대한 보다 깊은 논의는 다음 절에서 하기로 한다.

논의 및 결론

Kohlberg의 가상적 딜레마를 통해 분석한 각 집단별 도덕판단의 차이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하고자 한다.

도덕발달단계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나타

표 4. 집단별 도덕지향 사용을 종속변수로 한 Kruskal-Wallis 일원분산분석

도덕지향	평균 순위			df	Chi-Square ^b
	고등학생(20) ^a	대학생(42)	공무원(20)		
규범적	47.17	41.58	35.65	2	2.44
이기적	50.22	39.21	37.58	2	6.51*
공리적	44.28	37.21	47.72	2	3.32
이상적	25.92	41.30	57.50	2	18.17**
공정성	37.92	36.95	54.63	2	8.51*

* $p < .05$ *** $p < .001$

a () 은 사례 수

b 원래 Kruskal-Wallis분석의 통계량이 따로 있으나, 서열이 동일한 경우가 있을 경우 대략적인 통계량으로서 카이제곱치를 사용한다.

난 도덕발달단계들은 3단계, 3/4단계와 4단계이다. 이러한 단계들은 모두 관습적 수준에 속하는 것들로 이 수준에 속하는 개인들은 전관습적 수준과 달리 곁으로 보여지는 결과보다는 동기에 주목하며 자신이 속한 가족이나 집단, 국가의 기대에 부응하는 것에 가치를 둔다. 따라서 그들은 타인의 기대와 사회질서에 순응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질서를 절대적으로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지키며 정당화하는 태도를 보인다. 각 단계에 대한 설명을 보면 우선 3단계는 관습적 수준으로 도덕판단에 있어서 자신이 속한 집단 안에서의 인간관계 및 그들로부터 받는 인정(approval)의 중요성은 충분히 인식하는 반면 사회체제에 대한 고려는 아직 부족한 단계라 할 수 있다. 한편 4단계는 가족이나 또래집단을 넘어 자신이 속한 보다 큰 사회체제에 대한 인식이 보다 뚜렷해짐으로써 권위 및 성문화된 규칙, 사회질서 유지를 지향하고자 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권위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내며, 특정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행동 자체가 옳은 행동으로 간주된다. 마지막으로 3/4단계는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가려는 과도기적인 단계로서 3단계적인 생각과 4단계적인 생각이 혼재해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발달단계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고등학생의 경우는 3단계와 3/4단계에, 대학생의 경우는 3단계에서 4단계 사이에, 공무원의 경우는 3단계의 도덕판단을 보이는 이는 한 명도 없었으며 3/4단계와 4단계에 걸쳐 분포해 있었다. 이는 도덕발달단계가 집단의 학력 및 연령이나 경험의 정도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를 뒷받침하

기 위해 집단별로 나누어 본 WAS 평균 역시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고등학생의 경우가 322점, 대학생은 344점, 공무원은 362점으로 이를 발달단계로 환산하면 고등학생 집단은 3단계에 해당하며 대학생과 공무원 집단은 모두 3/4단계에 해당하는 점수라 할 수 있다. 대학생과 공무원의 경우는 발달단계를 보면 두 집단 모두 3/4단계에 해당하나 WAS를 살펴보면 공무원 집단의 점수는 4단계에 보다 근접한 점수로 그들의 발달단계가 대학생 집단에 앞선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설계의 차이로 인하여 정확한 비교는 불가능하더라도 각 집단의 발달단계를 선행 연구(Walker et al., 1987; Walker & Moran, 1991)의 유사한 집단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비슷한 발달수준을 보였다.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공무원으로 갈수록 연령 및 학력이 높아진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연구결과는 한편으로는 문화적 특성에 상관없이 도덕발달단계가 연령 및 학력에 따라 증가한다는 기존의 주장들(예: Nisan & Kohlberg, 1982; Tietjen & Walker, 1985; Walker, 1989; Walker & Moran, 1991)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도덕 지향

도덕 지향의 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각 집단에 따른 도덕지향 사용경향을 살펴보면 이상적 결과 및 공정성 지향의 경우는 연령 및 학력에 따라 사용이 증가하는 한편 이기적 결과 지향에서는 사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에서도 역시 연령 및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사용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집단별 도덕지향 사용비율(그림 1)을 보면 고등학생집단은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31%)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공정성(27%), 이상적 결과(21%) 지향 순으로 언급한 반면 대학생 집단은 이상적 결과 지향(31%)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규범적 질서유지(27%), 공정성(26%) 지향 순으로 언급하였다. 또한 공무원의 경우는 이상적 결과지향을 35%로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공정성(28%)과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20%)을 그 다음 순으로 언급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볼 때 고등학생 및 성인의 도덕지향 사용의 발달경향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연령 및 학력이 증가하면서 도덕발달단계가 증가하고 그에 따라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의 사용은 감소하는 반면 이상적 결과 지향과 공정성 지향은 증가한다 할 수 있다. 특히 이기적 지향의 경우는 통계적 분석에서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하더라도 비율 면에서 살펴볼 때 모든 집단에서(1~4%) 거의 사용하지 않아 선행연구(Baek, 2002)에서 같이 청소년기에 이미 고려되지 않는 지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리적 결과 지향사용은 청소년기 이후에는 연령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Baek(2002)은 아동기부터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도덕지향 사용경향 연구에서 아동기 초기에는 규범적 질서 유지지향, 이기적 결과 지향 및 공리적 결과 지향을 주로 사용하는 도덕판단을 하지만 청소년기로 올라오면서 그 세 가지 지향 중 이기적 결과 지향을 제외한 나머지 지향에 이상적 결과 지향 및 공정

성 지향까지 추가하여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도덕판단을 내린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청소년기까지는 이기적 결과 지향을 제외한 나머지 지향을 모두 고려하고자 하나 이후 성인기에서는 다섯 가지 지향 중 이상적 결과 지향과 공정성 지향을 중점적으로 사용하며 나머지 지향에 대한 사용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즉 성인기가 되어 발달단계가 올라가면서 도덕지향은 모든 측면을 고려하여 사용한다기 보다는 그중 가장 최선의 것만을 엄선하여 고려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발달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이기적, 공리적 결과 및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의 사용은 감소하고 이상적 결과 및 공정성 지향의 사용은 증가한다는 선행연구결과(예: Walker, 1989)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서론 부분에서 제기되었던 도덕지향 사용의 발달경향에 대해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Kohlberg가 제시한 다섯 가지 도덕지향 중 가장 먼저 발달하는 지향은 이기적 결과 지향이며 이 지향의 사용은 아동기에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 및 공리적 결과 지향의 사용은 아동기에서 청소년기까지 절정을 이루며 성인기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감소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적 결과 지향 및 공정성 지향은 청소년기부터 선호도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성인기에 가장 많이 고려하는 지향으로 남게 된다.

이상적 결과 지향 및 공정성 지향의 사용 경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이상적 결과 지향의 사용은 평균 사용횟수를

보았을 때 고등학생 집단부터 대학생, 공무원 집단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각 집단 안에서 다른 지향과의 사용비율을 비교해 보면 고등학생 집단에서는 이상적 지향의 비율이 21%로 이기적 지향을 제외한 다른 지향들의 비율(17~31%)에 비해 높지 않은 반면 대학생 때부터는 그 비율(31%)이 다른 지향들의 비율(2~27%)보다 높아지기 시작하여 이 시기부터 이상적 결과 지향을 본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공정성 지향의 경우 평균 사용횟수를 보면 공무원 집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특히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연구자들은 몇 가지의 해석을 해보았다. 하나는 공무원 집단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러한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같은 단계에 속하거나 연령 및 학력이 비슷한 다른 집단과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도덕발달단계가 올라가면서, 특히 4단계에 가까워지면서 공정성 지향의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한편 각 집단 안에서 다른 지향과의 사용비율을 비교해 보면 공무원 집단의 공정성 지향 비율(28%)이 다른 집단의 비율(26~27%)과 비교해 볼 때 별 다른 차이가 없어 공정성 지향사용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하게 한다. 즉, 공정성을 지향하는 것은 고등학생 시기에 이미 충분히 발달했으나 다른 지향사용 경향이 발달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감소함으로써 공정성 지향사용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보다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전체적인 지향사용경향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덕지향 및 선호도에 있어서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의 차이를 대략적으로나마 보여준다. 본 연구의 참가자들은 이상적 결과 지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공정성,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 순으로 사용하였다. 이는 캐나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Walker, 1986, 1989)나 중국 공산사회를 대상으로 한 연구(Walker & Moran, 1991)와 다른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도덕지향 선호에 있어서 문화적 차이가 있음을 암시해준다. 캐나다 성인의 경우 이상적 결과 지향을 가장 선호하고 공정성 지향을 가장 적게 사용하였으며 중국인의 경우에는 공리적 결과 지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으로 이상적 결과 지향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상적 결과를 선호하는 데 있어서는 캐나다인들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공정성 지향은 캐나다 및 중국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앞서도 밝혔듯이 본 연구의 대상집단 및 연구설계가 선행 연구의 경우와는 다소 다르기 때문에 위 연구들과의 직접적인 비교는 보류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배려와 공정성으로 나누어 볼 때⁴⁾ 두 지향 사용간의 비율은 47:53으로 그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무원 집단의 경우 대다수가 남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배려 대(對) 공정성의 차이가 52:48로 비록

4) Kohlberg가 분류한 다섯 가지 도덕지향 중 규범적 질서유지 지향, 공정성 지향은 Gilligan이 의미하는 공정성 지향에, 이기적 결과 지향, 공리적 결과 지향, 이상적 결과 지향은 배려 지향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미미한 차이이기는 하나 배려지향을 오히려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생각해 볼 때 남성들은 공정성 지향을 중점으로 하여 도덕판단을 한다는 주장은 별로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도덕지향사용에서의 성차에 대한 보다 설득력 있는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각 집단의 남녀비율을 맞추어 통계적 분석을 포함하여 한 차원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 결과에 대한 몇 가지 측면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 발달단계는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도덕 지향 사용에 있어서는 다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과는 다소 다른 특성을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이 발달적 요인에 기인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 및 제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기 및 다른 문화권에서의 도덕지향 사용경향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들과 연계하여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지향 사용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도덕판단 발달 성향에 대해 알아보하고자 하였다는 데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 비슷한 연령대에서 보다 다양한 직업군에 속한 개인들간의 비교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둘째로는 앞서도 언급했듯이 선행연구의 결과에만 근거하여 도덕 지향사용에 있어서 성별의 차이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셋째 도덕지향 사용에 있어서 다른

문화권에서 이루어진 선행연구 결과와 다른 결과가 보여진 것에 대한 원인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아 있다. 또한 다양한 발달단계에 속한 사람들의 도덕 지향 사용을 분석함으로써 발달단계와 도덕 지향간의 상관에 대해 보다 심도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점 역시 본 연구의 제한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응답자들의 발달단계가 4단계를 넘지 못하여 그 이후 단계에 속한 개인들의 도덕지향 사용경향에 대한 분석은 후속연구의 과제로 남아 있다.

참 고 문 헌

- 김선영 (1987).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양성적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실현성 및 도덕성 발달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문용린, 문미희 (1993). 한국 청소년의 도덕판단력 발달 연구개관: DIT를 사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1, 43-57.
- 백혜정, 고선주 (2001). 이숙우화를 통하여 본 아동의 도덕판단 발달: Kohlberg의 이론 중 도덕지향을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15, 215-235.
- 백혜정, 이순목 (2002). 학교 적응의 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의 도덕판단: 도덕발달 단계 및 도덕지향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 57-79.
- Baek, H. J. (2002). A comparative study of moral development of Korean and British children. *Journal of Moral Education*, 31, 373-391.
- Cohen, J. (1960). A coefficient of agreement for nominal sca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20, 37-46.
- Cohen, J. (1977). *Statistical Power Analysis for the behavioral sciences* (rev. ed.), NY: Academic

- Press.
- Colby, A. & Kohlberg, L. (1987).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Vols, 1 & 2*.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aniels, J., D'Andear, M., & Heck, R. (1995). Moral development and Hawaiian youths: Does gender make a difference?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4*, 90-93.
- Garmon, L. C., Basinger, K. S., Gregg, V. R., & Gibbs, J. C. (1996). Gender differences in stage and expression of moral judgment. *Merrill-Palmer Quarterly, 42*, 418-437.
- Gibbs, J. C., Arnold, K. D., & Burkhart, J. E. (1984). Sex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moral judgment. *Child Development, 55*, 1040-1043.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illigan, C. & Attanucci, J. (1988). Two moral orientations: Gender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Merrill-Palmer Quarterly, 34*, 223-237.
- Johnston, D. K. (1988). Adolescents' solutions to dilemmas in fables: two moral orientations-two problem solving strategies, In C. Gilligan, J. V. Ward & J. M. Taylor (Eds.) *Mapping the Moral Domai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Kohlberg, L. (1969). Stage and sequence: The cognitive-developmental approach to socialization. In D. Goslin (Ed.) *Handbook of socialization theory and research*. Chicago: Rand-McNally.
- Kohlberg, L. (1984). *Essays on moral development (vol. 2): The philosophy of moral development*. San Francisco: Haper and Row.
- Nisan, M., & Kohlberg, L. (1982). Universality and cross-cultural variation in moral development: A longitudinal and cross-sectional study in Turkey. *Child Development, 53*, 865-876.
- Snarey, J., Reimer, J., & Kohlberg, L. (1985). The socio-moral development of Kibbutz adolescents: A longitudinal, cross-cultural stud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3-17.
- Tappan, M. B., Kohlberg, L., Schrader, D., Higgins, A., Armon, C., & Lei, T. (1987). Appendix: Heteronomy and autonomy in moral development: two types of moral judgments. In A. Colby & L. Kohlberg (Eds.) *The measurement of moral judgment (vol.1): Theoretical foundations and research valid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ietjen, A. M., & Walker, L. J. (1985). Moral reasoning and leadership among men in a Papua New Guinea society. *Developmental Psychology, 21*, 982-992.
- Walker, L. J. (1986). Experiential and cognitive sources of moral development in adulthood. *Human Development, 29*, 113-124.
- Walker, L. J. (1989). A longitudinal study of moral reasoning. *Child Development, 60*, 157-166.

Walker, L. J., & Moran, T. J. (1991). Moral reasoning in a communist Chinese society. *Journal of Moral Education*, 20, 139-155.

K C I

The Differences in the Use of Moral Orientations among Three Groups: Focused on Kohlberg's moral developmental stages and orientations

Hye-Joeng Baek

Dongduk Women's
University

Soonmook Lee

Sungkyunkwan University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plore the moral judgment of 82 adolescents and adults based on Kohlberg's theory of moral judgment. In particular, their moral stages and use of orientations were analysed through interviewing the individuals with Kohlberg's hypothetical dilemmas, Form A. As Results, the moral stages increased with their ages and academic levels. Also, they showed a developmental tendency to use the moral orientations. That is, the use of the egoistic consequences orientation decreased across the ages and academic levels while the use of the ideal consequences and fairness orientations increased. We discussed the results in connection with the previous studies on Korean children's moral development and the individuals' moral judgment in other cultures. Based on these, we suggest Koreans' developmental tendency in moral judgment and the limitations of the present study.

Keywords : Kohlberg, moral stages, moral orientations, moral judgment